

行實圖의 傳記와 板畫의 相關性

—《三綱行實圖》를 中心으로—

金 鎮 榮*

차 례

- | | |
|------------------|--------------------|
| 1. 緒 論 | 4. 行實圖의 傳承과 板畫의 機能 |
| 2. 製作動機와 板畫의 相關性 | 5. 結 論 |
| 3. 敘事內容과 板畫의 相關性 | |

1. 緒 論

문학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출하는 언어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정신문화를 창출·전승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신문화를 창달하고 전승시키는 방편은 비단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음악·미술·무용·연극 등도 우리의 정신문화를 고양하고 전수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은 다른 예술장르와 긴밀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술은 詩畫一如라는 관점에서 오랫동안 문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전승맥락을 유지해 왔다.¹⁾ 이러한 미술과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시와 그림의 만남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는 물론 평민들까지 시와 그림으로 파한과 여기를 삼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안견의 <몽유도원

문학의 관계가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회화는 물론 조형미술도 불교문학의 실상과 적절히 대비되기 때문이다.²⁾ 특히 회화인 탕화·변상화는 서사적 그림의 성격을 띠며, 불교계 서사문학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³⁾ 이른바 <目連傳>과 <地獄變相>, <安樂國太子傳>과 <安樂國太子經變相圖>, <阿彌陀經>과 <阿彌陀經變相圖> 등이 그러한 실상을 직증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佛傳이나⁴⁾ 《三國遺事》 소재 불교설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⁵⁾ 서사문학과 회화는 많은 상관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문학과 미술인 회화를 병치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용과 유통의 용이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런데 불교계의 문예적 현상과 같이 유교계에서도 주변예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주목된다.⁶⁾ 불교전교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었던 문예현상과 같이 유교계에서도 治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예술을 활용했던 것이

도>는 다양한 한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부기되었다.(안휘준·이병한, 안견과 몽유도원도, 예경, 1993) 이것은 詩畫一如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시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사문학에서도 비중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불교계의 서사문학이나 유교계의 서사체에서 그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기에 繪畫은 문학과 많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2) 그러한 실상은 불경의 서사적 배경을 원용하여 가람을 배치했다던가 불탑·불상을 조축하되 불전 서사체를 원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실제로 八相展은 불전의 팔상을 참조한 것으로 건축미술이 서사문학과 대비되는 실상을 잘 보여준다.
- 3) 이러한 變相은 불교계 서사문학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하여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탕화가 설법현장의 배경도로 작용하였다.
- 4) 불전의 變相圖는 벽화·패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림의 내용은 주로 八相을 효과적으로 도출해 내고 있다. 이것은 신중들에게 불교의 敎理를 쉽게 펴고자 한 데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 5) 《三國遺事》설화들 중 보살·승려와 관계된 것에서 變相의 繪畫의 실상을 충분히 추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회화를 병치했던 것은 佛傳을 모방하여 해당 보살이나 승려의 영향을 강조하고 나아가 신중들의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6) 불교계에서 變相을 說法現場의 背景圖로 활용했던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 유교계에서도 공자의 행적도를 비롯하여 유교적 규범에 전형이 될 만한 사람들의 행적을 그림으로 도출하였다.

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三綱行實圖》·《五倫行實圖》·《二倫行實圖》 등이라 할 수 있다.⁷⁾ 실제로 이들 전적에는 板畫와 서사내용을 효과적으로 병치시켜 놓았다. 이것은 유교를 국시로 했던 조선조에 三綱五倫의 강령을 모든 백성에게 효과적으로 주지시킬 목적에서 구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문학과 미술의 종합적인 이해라는 차원에서 서사내용과 판화의 상관성 및 그 의미를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목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⁸⁾ 다만 서사내용에 대하여 문학적인 접근만을 시도했을 뿐이다.⁹⁾ 이제 서사내용과 판화가 병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사항을 들어 그 기능 및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삼강오륜의 綱領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하여 판화를 활용·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양상을 살피고, 다음으로 이들 판화가 서사내용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판화가 서사내용의 어떠한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독자층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7) 《三綱行實圖》·《五倫行實圖》 및 《二倫行實圖》는 선초에 국역된 이래로 꾸준히 印出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서사내용이나 板畫의 浮彫方法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있다 하더라도 입전인물 수효의 加減이 있을 뿐이고 국문 및 판화에 의한 표현양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하여 판화와 서사내용과의 상관성을 살펴 그 기능 및 의의를 밝힌다면 다른 텍스트에 대한 기능 및 의미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예술과 서사문학은 많은 친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사재동교수가 무령왕릉문물의 서사구조 I, 백제연구 제1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1. 배경론, 한국고소설론, 고소설연구회, 아세아문화사, 1991. 불교미술의 문학적 고찰, 유재영박사학갑기념논총, 1992에서 총론적인 언급을 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김진영, 형성기 국문소설의 예술적 배경연구, 어문연구 제25집, 어문연구회, 1995. 고소설의 낭송과 유통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제1집, 한국고소설학회, 국학자료원, 1995. 서사문학의 연행양식과 기능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28집, 어문연구회 1996.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에 대하여-예술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7집, 어문연구회, 1995 등에서 그 일단을 확인하였을 따름이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돼야 하겠다.

9) 盧泰朝, 國文傳記 研究(中央文化社, 1990), pp.91~144.

마지막으로 행실도의 전승과 판화의 기능에 대하여 고구해 보겠다. 판화가 서사내용을 효과적으로 각인시켜 유통을 원활하게 했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되겠다. 위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전개된다면 문학과 미술의 상관관계의 일단이 밝혀질 것이고, 문학의 이해 및 전승에 주변예술이 작용했던 양상이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 製作動機와 板畫의 相關性

잘 아는 바와 같이 조선조는 유교를 국시로 하여 삼강과 오륜을 생활철학의 전형으로 삼아왔다. 이것은 治國과 敎化의 근간으로, 사회의 제반 사항이 이 유교의 규범하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하여 조정대신들은 유교를 선양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생활화가 사회의 기강을 다지는 초석이기에 충·효·열·의를 생활의 기본으로 삼도록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¹⁰⁾ 이러한 권장의 실천적인 행위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敎化書를 펴내어 직접 교육·교화하는 것이다.¹¹⁾ 하지만 이 교화서도 피상적이거나 투식적인 것이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충·효·열·의에 실천적이었던 사람들을 傳記形式으로 集錄해 놓되, 모든 백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에 그 표현문자를 국한문의 이중구조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¹²⁾ 하지만 조선

10) 이러한 점은 여러 왕조에 걸쳐 각종 행실도를 지속적으로 간행한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續三綱行實圖》箋에서 “降衷秉彝實同得而有則化民成俗在善誘之無方人倫莫大於三綱治道宜則乎五典蓋集往昔之行跡用作來今之範模”라고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강오륜에 대한 전적이 京鄕에서 인출되었고,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의도하여 판화를 곁들이는 것은 오랜 전통이 되었다. 물론 조정을 중심으로 한 간행사업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에서도 인출이 이루어졌는데 錦山에서 《二倫行實圖》를 간행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12) 《三綱行實》·《五倫行實》·《二倫行實》 등이 한문으로도 전승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수용층을 고려하여 국문 및 판화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귀감이 될 이야기를 널리 퍼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국문이라 할지라도 문자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쉽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하더라도 문맹인에게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문자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감있는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可視的인 板書가 자연스럽게 병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판화가 서사내용과 병치될 수밖에 없었던 양상을 제작동기와 전주어 살펴보면, 첫째 용이한 이해를 목적으로 병치시켰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히 서사내용만을 문자로 기록하는 경직된 느낌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백성들이 문자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접근밖에 없었다.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이 그림이었다.¹³⁾ 따라서 판화를 병치시켰던 목적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은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입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병치시켰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히 서사내용만을 說破하는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복합적으로 서사내용을 이해시키도록 한 것이다.¹⁴⁾ 실제로 서사문학을 제작할 때에는 그것을 생산하는 제작자나 집단의 의도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당시의 문예현상이다. 고전의 문예는 다른 양식을 끌어들이어 복합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양한 방편으로 정신적인 행위를 표출·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예적 기풍은 단일 장르에 대한 미감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미감이나 교훈을 얻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

13) 이 점은 세종조에 편찬된 《三綱行實圖》 중간본 서문의 “予欲使取其特異者作爲圖贊須諸中外庶幾愚夫愚婦皆得易以觀感而興起則亦化民成俗之一道也”와 “圖形於前紀實於後而并系以詩孝子則謹錄” 등에서 확인된다. 게다가 중종조에 편찬된 《續三綱行實圖》에서도 “識智具圖成書揭不民(落張)라 했으며, 《中宗實錄》 권 15 任子條에서도 “先是上敎論中外日本朝忠臣孝子烈婦事蹟未及圖寫者並撫遺摺撫續印成冊禮曹行移名道節旣旣人姓名職銜使無遺牒報至是”라고 하여 그 실상을 가늠할 수 있다.

14) 서사문학에 미술을 병치시키는 것은 단순히 서사문학에서 오는 감동·교훈 이외에 시각적인 사실감을 보완하여 감상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서사미와 더불어 시각의 다양한 감흥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서사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감상이라 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삼강행실도》·《오륜행실도》 및 《이륜행실도》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판화를 병치하고자 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서사내용을 단순히 문자언어로만 표출하는 단조로운 방법에서 벗어나 가시적이고, 입체적인 효과를 노리고 판화를 병치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해당 서사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다각적인 교훈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¹⁵⁾ 요컨대 텍스트의 생산자들이 가용한 방편을 동원하여 서사물의 종합적인 이해와 교훈을 목적으로 판화를 병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강행실도》·《오륜행실도》 및 《이륜행실도》의 제작동기 및 목적은 백성의 교화와 치민의 중요한 수단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제작과정에서 판화를 병치시켰던 것은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의 사회를 감안하여 용이하게 해당 서사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서사체를 이해시켜 교훈의 효과를 배가하고자 한 측면에서도 판화를 병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3. 敍事內容과 板畵의 相關性

《三綱行實圖》¹⁶⁾는 여러 단편을 集錄한 列傳과 같은 모습을 띠기도 하며, 동일한 유형의 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集傳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대체로 이들은 서사적 성격이 미흡한 면이 있기에 서사미나 문예미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면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¹⁷⁾ 그러나

15) 이 점은 세종조에 편찬된 《三綱行實圖》 중간본 序文에서 “乃爲此書廣布民間使無賢愚貴賤孩童婦女皆有以樂觀而習聞披玩其圖以想形容諷詠其詩以體情性莫不歆羨慕勸勉激勵以感發其同然之善心而盡其職分之當爲矣”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 《三綱行實圖》는 계속해서 印出된 것으로 임전인물의 가감이 있을 따름이고, 판화의 기능은 여전하다. 여기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간행한 《三綱行實圖》(1977)를 텍스트로 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이 세종조에 편찬된 《三綱行實圖》의 重刊本 중 善本을 영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충·효·열·의의 전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윤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다만 불교계의 서사체들이 명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유지하는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 서사체는 현실계를 토대로 대부분의 사건이 진행되는 서사적 구성원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¹⁹⁾ 어쨌든 이들 서사체에 판화를 병치시킨 것은 문학이 미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板畫와 서사내용의 상관관계를 몇 가지를 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三綱行實圖》의 전반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국문으로 서사내용을 상단에 약술하고, 하단에는 판화로 서사내용의 요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뒷면에는 한문으로 다시 한번 서사내용을 정리한 다음 詩와 贊을 附記하였다. 특히, 판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題名을 붙였으며, 입전 인물의 國籍도 명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판화에 浮彫된 입전인들의 이름을 한자로 명시하여 주인공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는 모든 사항을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三綱行實圖》의 효자·충신·열녀조 중에서 한 작품씩을 선정·고찰하고자 한다.²⁰⁾

먼저 孝行의 서사물 중에 <王祥傳>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왕상전>의

-
- 17) 실제로 여기에 수록된 다양한 서사체들은 서사내용의 경계만을 약술한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기존에 다양한 묘사로 풍성한 서사문맥을 유지했던 작품들도 그 개요만을 서사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行實圖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板畫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본다.
- 18)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적 수준은 낮더라도 이들을 傳記文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현실적인 내용의 단순한 기록이기보다는 기확과 의도에 맞는 적절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음은 물론, 특정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공·허구적인 요소를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 19) 이러한 현상은 불교의 각종 서사체가 불보살의 형성내력을 밝히는 본풀이적 성격이 질기에 현세초극적인 무대배경을 원용하고, 유교계 서사체는 현생활을 염두에 두고 실천을 강조했기에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종교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 20) 필자가 선정한 작품은 무작위로 뽑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서사체들과 판화가 이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 모두를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세 작품의 분석은 서사문맥과 판화의 상관성에 대한 전반적 성격을 가늠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板畫에는 ‘王祥剖氷’이란 題名이 붙어 있으며, 다섯 개의 주요장면을 제시했다.²¹⁾ 먼저 서사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이 서사내용과 판화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구해 보고자 한다.

- ① 왕상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는다.
- ② 계모가 시키는 외양간 치는 일 등을 성심껏 한다.
- ③ 부모가 늙어 병이 드니 옷을 벗지 않고 봉양에 온 힘을 쏟는다.
- ④ 어머니가 산고기를 먹고 싶어하자 얼어붙은 강에서 고기를 구하고자 한다.
- ⑤ 이때 얼음이 저절로 갈라지며 두 마리의 고기가 뛰어 올라 어머니를 무사히 봉양한다.
- ⑥ 어머니는 또 참새를 먹고 싶다고 한다.
- ⑦ 이에 참새 수십 마리가 집으로 날아들어 무사히 어머니를 봉양한다.
- ⑧ 어머니는 나무에 열매가 맺으니 왕상에게 그것을 지키라 한다.
- ⑨ 이에 왕상은 비바람이 칠 때면 나무를 부여안고 운다.
- ⑩ 어머니가 갑자기 죽자 간신히 막대를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이다.
- ⑪ 후에 벼슬이 삼공에까지 이른다.

위의 서사내용은 지극히 축약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문학적인 운색보다는 서사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여 주인공의 독실한 효행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효행의 전범을 제시하되 교화·교훈에 목적을 두었기에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직선적인 서술에 머문 감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서사내용을 판화가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판화의 장면을 간단히 제시하고 서사내용과 비교·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각각의 판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상이 외양간을 청소하는 장면’, ‘얼음 위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 ‘부모님 옆에서 참새를 잡는 장면’, ‘나무를 부여잡고 우는 장면’, ‘어머니가 돌아가자 슬피 우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마치 연극의 각개 장면을 판화로 정리해 놓은 듯한 인상을 질게 풍긴다. 따라서 판화는 단편적인 그림의 차원에서 벗어나 불교계의 變相圖처럼 서사적 그림의 모습을 띤다 하겠다. 이제 판화의 각 장면을 들면서 서사내용을 검토해

21) 이 작품은 꾸준한 유통을 보여 屏風畫와 단독 繪畫로도 전개되었다.(趙子庸, 孝子圖,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民族文化大百科事典, 제25권, 1991. p. 657 참조)

보도록 하겠다.

‘외양간을 청소하는 장면’은 계모의 명에 의하여 집안 일을 원만히 수행하는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장면은 집안의 모든 일을 수행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서사내용에서 부모를 공양했던 양상을 보완하는 것임은 물론, 부모를 위해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한 효성의 일단을 보인 것이다. 그것도 자애롭지 못한 계모를 섬기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기에 효행의 실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얼음 위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은 ③·④의 화소에 대한 板畫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행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그것이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인공의 효행이 더욱 뛰어난 것처럼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이 효행을 선양하기 위해서 제작·유포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더욱이 어머니가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봉양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회제도의 충실한 반영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남성의 재혼 및 처첩제도가 공인되는 사회에서는 계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모님에 대한 효행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다.

‘부모님 옆에서 참새를 잡는 장면’은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누워 있으며 마당에서 왕상이 참새를 잡는 모습이다. 이 장면에서는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지극정성을 다하는 왕상에게 참새들이 저절로 마당에 날아들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왕상이 出天大孝임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수옹충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면모를 강하게 암시한다. 이 장면은 위의 장면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효행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서사내용상 상승·결정의 단계를 보여준다.

‘나무를 부여잡고 우는 장면’은 계모가 나무열매를 지키라 하여, 비바람이 불 때면 열매가 떨어질까 두려워 나무를 부여잡고 우는 것이다. 하지만 왕상은 불가항력적인 사황을 시키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

넘한다. 이것은 조선조 사회의 윤리강령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리 불편부당한 일이라 할 지라도 부모님의 명에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불가능한 상황을 따르고자 한 점은 왕상의 효행의식이 투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왕상이 어머니가 돌아가자 슬피 우는 장면’은 서사적 종결부의 면모를 보여준다. 실제로 왕상은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인물이기에 어머니가 죽자 그 장례의 시종을 엄격히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서사내용에서는 그러한 실상이 모두 생략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판화로 제시하여 장례의 모든 절차를 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판화는 서사내용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서사내용에서는 극히 미약했던 것을 굳이 판화로 제시했음은 상례가 효행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 본다. 말하자면, 효행과 밀접한 요소이기에 서사내용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화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효행을 강조하려는 의지의 반영임은 물론, 서민대중들의 이해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이 장면은 서사내용을 보강·강조하여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와 더불어 종결부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하겠다.

이렇게 보았을 때 <왕상전>의 서사내용은 계모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그 계모를 봉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와 효행의 요체는 크게 네 부분으로 유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면모를 판화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서사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판화가 모두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판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서사내용의 요점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기에 敍事的 그림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판화는 서사내용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서사내용의 간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忠臣條의 <朴堤上傳>에 대하여 서사내용과 판화의 상관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이 <朴堤上傳>에서도 상단에 국문으로 서사내용을 기술하고 하단 奎面에 네 장면의 판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뒷면에는 한문의

서사내용과 찬시를 첨기해 놓았다. 따라서 <朴堤上傳>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사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실성왕이 내물왕의 아들 末斯欣을 왜나라에, 그의 형 복호를 고구려에 불모로 준다.
- ② 눌지왕이 등극한 후 박제상이 고구려로 가서 형 복호를 데려오니 왕이 기뻐한다.
- ③ 왕이 다시 왜국에 있는 동생 말사흔이 보고파서 피로워하니 박제상이 기꺼이 왜국으로 건너 간다.
- ④ 박제상은 왜국에 가서 망명한 것처럼 가장하여 왜왕의 신임을 받는다.
- ⑤ 박제상은 말사흔과 뱃놀이를 하는 척하다가 말사흔을 몰래 귀국시킨다.
- ⑥ 이에 노한 왜왕은 박제상을 회유하여 신하로 삼으려 한다.
- ⑦ 하지만 박제상은 계림국의 신하임을 밝히고 왜국의 신하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 ⑧ 왜왕은 박제상을 회유하기 위하여 발의 가족을 벗기고 풀을 자른 날카로운 길을 걷게 하고, 달군 쇠 위에 세우고 어느 나라 신하인지 묻는다.
- ⑨ 박제상이 계림국의 신하임을 밝히자 왜왕은 회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불에 태워 죽인다.
- ⑩ 박제상 부인이 세 딸과 더불어 치솔령에서 박제상을 기다리다가 죽는다.

위의 서사내용은 상당히 축약되고 그 요체만을 서사한 것이다. 그것은 이미 《三國史記》 列傳에 서사된 내용이 이보다 풍성하고 서사적 기교가 뛰어남을 보아서 쉽게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이것은 서사내용을 적실히 표현하기보다는 이 전적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板畫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라 본다. 결국은 문학이 미술에 의해 전승·향유되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이러한 서사내용이 판화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

<박제상전>에서는 모두 네 장면의 판화가 浮彫되어 있다. '박제상과 신라왕 및 신하들이 상의하는 장면', '박제상이 고구려에 가서 왕을 만나는 장면', '신라왕자 말사흔이 배를 저어 귀국하는 장면', '박제상이 왜국에서 왜왕의 회유책으

로 갖은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서사전개에 있어서 주요 부분을 발체·집록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각개 장면을 들어서 서사내용과 견주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제상과 신라왕 및 신하들이 상의하는 장면'은 서사내용의 도입부를 집약해서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의 도입부는 눌지왕과 박제상 및 대신들이 모여서 왕자들을 데려오는 계획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면모를 첫 장면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은 임금 중심으로 박제상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인데, 서사내용의 상당량이 함축되어 있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군신이 모여 왕자들을 데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숙의하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제상이 고구려에 가서 왕을 만나는 장면'은 서사전개상 상승부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면모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타국에 있는 왕자를 데려오는 충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특히 적국인 고구려나 왜국에 들어가서 긴장감 넘치는 구출작전은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 잡혀간 왕자를 구해오는 것은 사건이 점진적으로 진전됨을 보이는 바라 하겠다. 이 장면은 그러한 실상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바이기에 사건전개의 진면목을 도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왕자 말사흔이 배를 저어 귀국하는 장면'은 박제상이 왜국에 건너가 갖은 술수로 왜왕의 신임을 받고 왕자를 구출하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집약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것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오로지 왕자의 무사한 귀국을 염원하는 박제상의 충절이 함축되어 있음은 물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숨막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이 작품의 위기 정도에 해당하는 서사내용을 적절히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이 부분만큼 긴장감을 자아내는 부분은 없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기점으로 서사전개가 절정·결말을 야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서사내용의 요

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바라 하겠다. 따라서 이 장면 또한 서사적 요체를 가시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서사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제상이 왜국에서 왜왕의 회유책으로 갇은 고문을 당하는 장면’은 이 작품의 절정·결말 부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작품은 박제상의 충절을 선양하고자 제작된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말은 일을 무사히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잃고마는 것이기에 더욱 주목되는 작품이다. 특히 계림국의 신하임을 거듭 밝히며, 갇은 고초도 감내하는 박제상의 모습은 충신의 전범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이 판화는 서사내용과 관계하며 더욱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 왜왕 앞에서 박제상이 겪는 형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충신이 지켜야 할 의리와 절개를 함축적이고 심도있게 그려낸 것이다. 이렇게 박제상이 고통받는 상황을 판화가 여실히 보여주어 충절에 대한 교훈의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고통받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서사내용을 판화가 보여준 것은 박제상의 충절이 그만큼 강화되어 표현되고, 나아가 최종적인 결과로 처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박제상전>은 서사내용을 판화가 효과적으로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이 판화는 서사문학의 이해에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계를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다음은 열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都彌傳>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도미전>은 이미 《三國史記》 열전에 수록된 것으로, 도미처의 정절을 의미있게 다루어 놓았다. 여기서도 그 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부녀자의 정절·열의를 핵심으로 구축해 놓았다. <도미전>도 상단에 국문으로 서사내용을 기술하고 하단 全面에 다섯 개 장면의 판화를 부조했다. 뿐만 아니라 뒷면에는 한문으로 서사내용을 재차 기록하고 찬시를 첨기하였다. 먼저 서사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도미처의 절개가 뛰어남을 개루왕이 듣고 도미를 불러 계집이 절개가 뛰어나도 공교로이 달래면 마음을 동한다고 한다.
- ② 이에 도미는 내 계집은 설마 죽어도 두 뜻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③ 개루왕은 도미처의 절개를 시험하기 위하여 도미를 잡아 두고 신하를 자신으로 분장하여 도미집에 보낸다.
- ④ 왕으로 가장한 신하는 도미처에게 내가 도미와 장기를 두어 너를 얻었으니 궁으로 불러들여 궁인을 삼으리라 하고 내통을 요구한다.
- ⑤ 도미처는 왕이 거짓을 할 리 없다 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 기다리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다고 한다.
- ⑥ 도미처는 계집종을 자신인 것처럼 분장하여 수발을 들게 한다.
- ⑦ 왕이 후에 속은 줄 알고 도미의 두 눈을 자해하여 배에 실어 띄워 보낸다.
- ⑧ 개루왕은 도미처를 데려다가 강제로 내통하려 하니 도미처는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하되 다만 금일은 월경이 있는 날이라고 속여 왕을 따돌린다.
- ⑨ 도미처는 왕이 안심한 틈을 타서 도망하여 강가에 이른다.
- ⑩ 강을 건널 수 없게 된 도미처는 하늘을 보며 크게 우니 문득 배가 다다른다.
- ⑪ 배를 타고 천성섬(泉城島)에 도달하여 남편을 만난다.
- ⑫ 남편이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서 풀뿌리를 캐 먹이고 고구려로 데려 간다.

이러한 서사내용은 이미 전대부터 전승되던 것이다. 그것도 이보다 윤색된 서사문학으로 유통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행실도로 편입되면서 그림의 기능이 확대·강화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서사내용이 아주 簡要한 형태로 축약·정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판화를 보면, ‘임금으로 가장한 신하가 도미집을 찾아 온 장면’, ‘도미의 두 눈을 자해하는 장면’, ‘궁중에서 왕이 도미처를 회유하는 장면’, ‘도미처가 강가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통곡하는 장면’, ‘천성섬에서 도미처가 도미를 구원하는 장면’ 등이다. 이제 이들 판화와 서사내용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개괄해 보고자 한다.

‘임금으로 가장한 신하가 도미집을 찾아 온 장면’은 사건의 시발을 알리는 도입부적 背景圖이다. 실제로 이 작품의 사건진행은 왕이 도미처를 회유하고, 그에 따른 도미처의 정절이 대조·강화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왕이 도미처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이 장면은 이 작품의 도입부의 면모를 띤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판화가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서사내용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도미처가 계집종을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을 들게 하는 모습은 위기를 모면하는 일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임은 물론, 도미처의 정절에 대한 강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끈 이 판화는 서사적 그림의 성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도미의 두 눈을 자해하는 장면’은 도미처가 계집종을 자신인 것처럼 가장했던 사실을 안 왕의 보복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미를 묶어놓고 두 눈을 자해하는 형상이다. 이는 말로 서사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표현임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이 구체적으로 진전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전개·상승부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서사내용의 요체를 판화로 보여주어 사건진행의 중심축을 알 수 있게 하고, 잔악한 행위와 사실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궁중에서 왕이 도미처를 회유하는 장면’은 왕이 이미 도미의 두 눈을 해치고 강에 버린 후 도미처를 불러 내통할 것을 회유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이제 도미처가 절대적인 힘 앞에서 굴복해야만 하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도미처는 남편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의지할 곳 없는 신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다가오는 왕 앞에서 정절을 고수하고자 하는 도미처는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굳건히 지키던 정절도 왕에 의하여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장면은 사건전개상 위기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한 서사내용의 핵심을 판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도미처가 강가에 이르러 하늘을 향해 통곡하는 장면’은 도미처가 가장 어려운 역경에 처한 상황을 적실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왕을 속이고 도망하는 도미처의 심정은 지척이 천리같은 마음이다. 그것도 잡히면 정절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목숨까지 잃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장면은 가장 긴박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절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도미처는 강가에 이르러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그녀를 하늘에서 내린 열부로 인식케 한다. 서사전개상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도미처의 고단한 신세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 판화는 절정장면의 시각화라 하겠다.

‘천성섬에서 도미처가 도미를 구환하는 장면’은 서사전개상 하강·결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미처는 배를 타고 천성섬에 이르게 된다. 그 곳에 도착하니 도미가 아직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미처는 도미에게 풀뿌리를 캐 먹이며 구환하여 고구려로 간다. 이 장면은 끝내 정절을 지키는 도미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음은 물론, 일부종사의 실천적 덕목이 부각되는 바이다. 어쨌든 사건의 최종적 결과를 판화로 요령있게 처리하였다.

이렇게 <도미전>은 서사내용을 판화가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불교계의 변상도처럼 사전진행의 요체를 가시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적 그림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이처럼 서사문학은 독립된 양식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다른 문예양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4. 行實圖의 傳承과 板畵의 機能

고전서사물의 특성 중의 하나가 통시적인 맥락을 두고 꾸준히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부연·연역되고 나아가 다른 문예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²²⁾ 《三綱行實圖》도 유통과정에서 다른 문예양식을 활용했던 양상은 예외가 될 수 없다.²³⁾ 여기서는 제작과정과 연관을 두

22) 김진영,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에 대하여-예술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27집(어문연구회, 1995), pp.71~73.

23) 《三綱行實圖》나 《五倫行實圖》의 유통에서는 음악의 작용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교화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낭송할 때에는 음악의 다양한 울조가 동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聲樂이 적절히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러한 성악을 음악계에서는 誦書라 하는데, 이들의 작용으로 이들 전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판화와 상관성만을 고려한 논의이기에 이 문제

며 판화가 유통에 기여했던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앞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삼강행실도》의 서사내용과 판화는 긴밀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판화들은 대체로 서사내용의 중요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서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성·현장성·정확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유통될 때에는 당연히 수용층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기능했으리라 여겨진다.

먼저, 판화로 인하여 복합적인 미감 및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제작자의 의도와도 깊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수용층이 단순히 서사내용의 이해와 감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화로서 다시 한번 확인·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합적으로 서사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판화의 효과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예적 유통은 많은 장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청중들에게 입체적인 미감 및 교훈을 얻도록 한다.²⁴⁾

이와 같이 복합적인 이해와 감상은 결국 수용자에게 복합적인 감각을 활용하여 서사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서사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자 해독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문맹인은 판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해당 서사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작자들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용이한 이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²⁵⁾

또한 서사물을 문자해독에 의지하지 않고 판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卽興性·卽物性도 증시된다. 문자로 기록되었을 때에는 해당 서사물을 면밀히 읽어야만 그 내용을 체득하는데 반하여 판화로 제시하는 것은 보는 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사물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평이한 수용은 수용자에게 더욱 오랫동안 해당 서사체를 인지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용자가 서사물을 읽고 난 후 다시 검토하거나

에 대해서는 부득이 유보해 두고자 한다.

24) 김진영, 고소설의 낭송과 유통에 대하여, 고소설연구 제1집(한국고소설학회, 1995), pp.63~94.

25) 특히 판화를 첨부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게 묘사해야 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어 이해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이다.

감상할 때, 판화만을 보고 서사내용을 회상하는 이점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서사물을 이해하거나 감상할 때 이 판화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판화는 서사내용의 현장성·사실성·정확성을 확보하며 수용·유통에서도 기능했다. 즉 수용자에게 복합적인 감흥을 유발하여 문예미에 대한 폭을 넓혔으며, 또한 용이하게 서사내용을 수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서사내용에 대한 즉흥적인 이해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재수용과 회상을 쉽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판화가 병치해서 가능했던 것이기에 판화는 유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結 論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삼강행실도》에 병치된 판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보았다. 먼저 제작동기와 판화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작품내용과 판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행실도의 수용과 유통에서는 이 판화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실도는 백성들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제작·유포되었다. 이것은 유교를 국시로 했던 조선조에서는 治國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작하는 담당자들은 수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이러한 점에서 꾸준히 국역화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판화를 병치시켜 이해에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판화는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서사내용의 이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문맹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적절한 것이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즉흥성이 있어 단지 보기만 하여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자표현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

작자들은 판화를 병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판화는 서사내용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입전인물의 충·효·열·의의 실천적 모습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서사내용의 핵심을 판화로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인물됨이나 현장적인 무대배경을 적실히 제시함은 물론, 사건진행의 핵심을 노정해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제사상의 진면목을 부각함으로써, 이 판화는 서사내용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서사내용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강화하고, 다양하게 묘사해야 할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서사내용의 전반적인 이해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판화는 서사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서사적 요체를 가시적으로 도출해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 판화는 행실도의 수용 및 유통에서 적절히 기능하였다. 그것은 이 판화가 서사내용에 대하여 사실성·정확성·현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먼저 판화는 서사내용과 병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감상과 교훈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은 서사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 요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서사내용을 간파·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복합적으로 서사체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도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것은 재수용 즉, 회상에도 용이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화는 그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수용 및 유통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三綱行實圖》에 병치된 板畵를 중심으로 그 제작과정·작품내용 및 수용과 유통에 기여했던 실상을 간략히 고찰해 보았을 따름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확대하여 불교계 서사체와 변상도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고전소설 전반에 나타난 회화의 기능을 유형별로 파악·고찰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만 서사문학이 주변 예술장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져, 예술사 속에서 문학사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